미국 풍력부품 시장, 우리 업계 적극 노려볼 만

이남수 Unisource America, Inc. 사장

미국 시장에서 사장님이 일궈낸 주요 성공사례는 무엇이 있는지요?

과거 창업하기 전에 삼성 중공업에서 약 12년 정도 근무했으며, 처음 미국 중장비 시장에 진출할 때 판매망을 성공적으로 구축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중장비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반드시 미 전역을 커버할 수 있는 딜러망 구축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는데, 진출 초기 삼성 중공업 브랜드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으며 세계 굴지의 미국 중장비 기업인 캐터필러가 버티고 있어, 미국 시장을 비집고 들어가 정착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삼성 중공업 미주 법인은 IMF 사태로 인해 Volvo에 매각되기 전까지 성공적으로 딜러망을 구축하였습니다. 삼성 중공업의 미국 시장 굴삭기 시장 점유율이 7%에 달한 적도 있었으니까요. 당시 삼성 중공업의 시장 점유율은 캐터필러, 일본의 고마쯔에 이은 3위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엔 한국기업 S사의 미국시장 독점 판매권을 가지고 풍력발전 부품을 GE에 납품하고 있는데, 연간 납품액은 약 1,200만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GE와 같은 글로벌 환경기업에 납품할 수 있었던 주요 성공 요인은 무엇입니까?

삼성 중공업 근무 시절이나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 지금이나 성공할 수 있었던 원인은 정확하고 면밀한 시장 분석을 토대로 적극적인 전략적인 마케팅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한 결과라 생각되며, 운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풍력발전 시장의 경우 3~4년 전부터 GE 및 1차 벤더들이 대부분의 베어링, 타워 플랜지 등 부품을 해외에서 아웃소싱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미국 그린산업에 풍력발전 부품공급을 위한 대형 설비투자를 하는데 위험부담이 있었습니다. 풍력발전 보급률도 지금보다 훨씬 작았고, 에너지 효율도 많이 부족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중국, 일본 등 대형 단조 부품이나 베어링 제조 역량이 있는 기업을 물색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일본보다는 가격이 낮고, 중국보다는 성능이 우수해서 해볼만 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풍력발전 부품 시장 참여 계기는?

예전부터 알고 있던 미국 풍력발전 부품 생산 업체이며 GE에 납품하고 있는 A사 바이어로부터 한국 업체 중 풍력발전용 베어링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업체를 물색해 달라는 의뢰를 받은 것이 계기가 되었으며 그때 발굴한 한국 업체가 현재 GE에 풍력 발전 부품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Unisource America, Inc.

- 설립 연도 : 1999년
- 사업 분야 : 컨설팅 및 세일즈 랩
- 산업 분야 : 풍력발전 부품, 중장비 부품, 원자재 및 곡물
- 사업 성과 : 매년 GE에 1,200만 달러에 달하는 풍력부품을 납품 중

이 남수 사장 미국 내 주요 경력 및 활동

- 1987.4 ~ 1998 : 삼성중공업 미주 지사 근무,
  삼성중공업 초기 미국 진출 시 성공적인 판매 딜러망 구축
- 1999 ~ 현재 : Unisource America 대표
  · 중장비 부품 업체인 한국의 D사 미국 판매 책임자 역임
  · 한국의 풍력 발전 부품 업체 S사 제품을 세계 최대 풍력 발전 업체인 GE에 납품

한국 업체가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었던 배경은?

3~4년 전만 해도 잘 알려지지 않았던 풍력 산업에 한국 업체가 진출할 수 있었던 요인은 대외적으로 풍력발전 관련 부품수요가 급증했고 이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 관련 잠재 기업이 과감하게 투자하도록 전략적으로 유도한 결실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미국 풍력발전 산업은 지난 3~4년 전부터 급성장 하면서 부품 수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즉 풍력발전 부품시장 초과수요로 부품 업체들이 생산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부품업체들은 아웃소싱을 통해 부품 생산 및 공급 가능 업체 확보에 나섰으며 이 기회를 적절히 활용한 것입니다. 또한 한국 업체의 적극적인 기술 개발 및 시설 투자가 뒤따랐기 때문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GE가 한국기업의 제품을 불신 했었습니다. 그런데 1차 벤더가 기술 및 엔지니어링 보증을 서면서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 GE의 1차 벤더 덕분에 이제는 GE도 한국의 S사 제품력을 인정하게 되었고 그 결과 지금은 직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중장비 부품과 풍력산업이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지요?

중장비와 풍력발전 부품 산업의 가장 큰 공통점은 부품이 대형이며 정밀한 금속 가공기술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장비 업체 중 대형 금속부품 가공 기술을 확보하고 있고, 새로운 사업 분야로 사업 다각화를 계획하고 있는 업체들은 풍력부품 산업으로 진출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볼만합니다.

미국 풍력발전 산업 전반 또는 부품시장 현황 및 전망은?

지난해 여름 까지 만해도 풍력발전 관련 부품시장은 공급이 수요를 따라 갈 수 없는 전형적인 초과 수요 시장을 형성하고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부품 및 완제품 생산업체들의 생산 능력 확충과 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 증가율 둔화로 부품 수급이 균형을 이룰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제 진정한 경쟁이 시작된 것이지요. 풍력발전 산업도 경기 침체로 인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에 따라 여타 산업에 비해 크게 위축되진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부품 업체의 미국 풍력부품시장 진출 가능성 및 전망은?

한국의 대형 금속 가공 부품을 생산한 경험이 많은 조선 및 중장비 부품 생산업체들이 풍력발전 부품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가장 유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성공적으로 미국 풍력발전 시장에 진출하는데 도움을 준 한국 업체인 S사는, 중장비 부품을 생산하던 업체로 기존에 확보하고 있던 대형 금속 부품 가공기술을 가지고 풍력 발전용 베어링 생산 분야에 뛰어들어 성공한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 건설 중장비 부품생산 업체가 풍력발전 관련 부품산업에 진출하는데 있어 유리한 점은 대형 금속부품을 가공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과 품질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등 경쟁국 제품이 미국 시장에 속속 진입하고 있고, 미국 업계도 적극적인 설비 투자에 나설 전망이어서 점차 경쟁이 치열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 풍력발전 시장이 성숙되기 전에 한국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진출하려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국 풍력발전 부품기업과 거래하면서 느끼는 아쉬운 점?

미국 시장에 대한 이해 부족을 들 수 있습니다. 소수의 메이저 플레이어를 통해 이루어지는 풍력발전 시장의 특성상 철저한 정보입수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투자나 사업 파트너로서 서로 함께 장기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지속적인 품질관리, 적극적인 마케팅 노력이 필요하지만 산업 특성 상 초기에 많은 투자가 요구되고 있어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지원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한국 풍력발전 부품업체들에게 미국시장 진출 위한 조언을 해주신다면?

미국에서 개최되며 세계 최대 규모의 풍력발전 전문 전시회인 Windpower Conference & Exhibition에 매년 참관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풍력부품 분야가 초과수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인 마케팅 노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전문 전시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참관해서 현지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시장정보를 입수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난해에는 한국 풍력관련 업체 약 8개사 정도가 상기 전시회에 참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시회에 참가하면 바이어를 만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장정보 입수에도 많은 도움이 되니 적극적으로 참여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한국 업체들이 미국 풍력 발전 부품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시장 조사와 분석, 정확한 납품 채널 파악, 현지 시장을 잘 알고 있으며 밀착 지원할 수 있는 전문가와 협력을 통해 시행착오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대기업들도 미국 풍력산업에 적극 진출하여 중소 부품업체들도 동반 진출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풍력부품산업에서 중요한 부분이 운송비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미국 일부 주정부에서 전략적으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현지 투자를 유도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윈드터빈 제조 기업 등과 같이 주요 풍력 메이커 인근에 현지 부품공장을 설립해 저비용 적기 공급 라인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사전에 품질을 인정받아야 하므로 준비가 철저해야 합니다.

GE 등 주요 글로벌 터빈메이커의 향후 소싱 전망 및 유망 부품 ?

GE 등 풍력관련 대규모 글로벌 업체들은 그 동안 풍력 산업의 급성장에 따라 부품 수급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나 올해부터는 수요가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 소극적으로 신규 부품공급 업체 발굴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풍력 발전 관련 유망 부품은 베어링, 기어박스 등과 같은 단조 기능성 부품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산 부품의 기술 및 가격 경쟁력이 멕시코산 제품보다 갈수록 약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 우려됩니다.